

지방화 시대의 생활개선사업 방향과 전망

김 순 심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The Prospects of Home Improvement Services in the Age of Localization

Soon Sim Kim

Chung buk Provinci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 머리말

1957년 전후 회복기 우리나라 농촌 부흥의 필요성에 의해 Macy 보고서를 기초로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개선사업은 3대 지도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전후시대 빈곤에서의 탈피를 위한 식량절약을 시작으로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주곡의 자급을 위한 주곡대체식품 개발 보급, 농번기탁아소 운영 등 농촌의 부흥을 위한 사업에 몰두하였고 '80년대에 들어서는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와 증대에 따른 각종 교육의 강화와 소득증대에,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개방화 물결에 부응하여 농촌의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이제 21세기를 향한 생활개선사업의 방향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

충북의 경우를 단편적으로 거론한다면 지방화의 분위기에 맞도록 여러가지 사업의 선전 등에 많은 연구를 투자하여 전국에 표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92년부터 기초조사를 거쳐 농민

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생활개선사업의 핵심 조직인 생활개선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특별수련회, 기금설치 조례 제정 등을 비롯하여 어머니와 자녀를 한 자리에 한 여성 특별교육으로 화목한 가정분위기 조성, 생활개선 시범마을의 보조사업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생활개선, 그리고 일감맞기사업 지역의 활성화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생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연구 등 나름대로 지방화에 대비한 여러가지 창안사업의 실시로 행정이나 사회단체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과제의 변천과 함께 직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바, 초창기에 교도원으로서 지역단위 1~2명이었던 생활개선 지도요원은 한 때 별정직으로 편제되었다가 이후 '89년 시·군에 생활개선계가 신설되고 '90년에는 도에 생활지도과가 신설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왔으며 생활개선사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III. 생활개선 지도체계의 변화

이러한 생활개선 지도체계 개편과 함께 2배 가까이 늘어난 생활지도사 정원에 의해 신규로 채용된 생활지도사들은 생활개선사업 추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또한 그와 함께 증가된 생활지도관 정원도 생활지도사들에게 사기

를 붙여넣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지도직 공무원의 12%를 차지하는 생활지도직에는 지도관의 비율이 2% 수준으로 농촌지도직 중 지도관이 6.3% (이나마도 중복은 높은 비율일 것임)인 것에 비하면 심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직화되면 생활지도직의 경우는 승진기회가 전혀 없다. 다행히 사회지도과장과 시·군 소장의 직제를 농촌지도관과 생활지도관의 복수직으로 계획되고 있다거나 도 원 계장급 공무원을 지방지도관으로 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소리는 전체 생활지도직 공무원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분화되고, 특히 도 원에는 이 두 형태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직원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 간의 교류에 전혀 제약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시·군에는 생활지도직이 4~5명 정도이므로 이들의 인사관리 역시 시·군별로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도 단위 이상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

IV. 지방화시대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선결과제

이러한 표면적인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생활개선사업은 앞으로 희망이 있으며, 지도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역발전에도 구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나 역시 생활지도사의 일원으로서 그저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다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시대적인 상황의 적절한 반영으로서 생활개선사업의 긴요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이제 생활개선사업은 지도사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사회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필수사업으로서 소비자에게까지 그 대상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미 충북에서는 시·군별로 생활개선 분야의 특색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도 원은 보다 넓은 지역사회인 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시·군과 중앙을 잘 연계하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갈 것이다.

셋째는 생활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체계의 정비이다. 지방직으로서 조직개편이 된 이후 지속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나 '97년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는 사실 우리 생활지도사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생활지도사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여건과 자치단체의 방향, 중앙정부의 취지 등 다각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시군-도-중앙의 원활한 협조체계의 구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생활지도사나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편견 특히 여성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 공무원이기 이전에 생활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시대상황에서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일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여 사명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때 농촌 생활의 질향상과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 향상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이 확정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기적, 절차상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농민 중 여성이 52%나 되고,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가는 시점에서 농촌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주역

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위치를 지키면서 노력한다면 앞으로 무궁히 발전할 수 밖에 없는 분야라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열망과 사명감이 유감없이 농촌 발전을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지방화시대의 농촌생활 개선사업

이 경 애

경기도 안성군 농촌지도소

1. 들어가는 말

생활개선사업에 몸을 담은 지 16년째도 벌써 마감하고 있는 이 즈음에 '지방화시대 생활개선사업'에 대하여 전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짧지 않은 기간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든다.

올해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한층 가깝게 다가온 지방화시대라는 말은 '97년 시·군 생활지도사를 포함한 일부 지도직의 지방직 공무원화라는 당면한 현실과 더불어 우리의 문제로 놓여 있습니다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방화시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막연하게나마 생활개선사업 뿐만아니라 우리 생활지도사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생활지도사는 어떻게 되며,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좋은 점과 함께 어려운 점들도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부족하나마 그동안 혼자서 생각해 보았던 지방화시대, 특히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이후 우리 생활개선사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생활지도사들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말해 보고자 한다.

2. 몸 말

지방화시대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를 크게 생활개선사업과 생활지도사로 구분하여 생

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생활개선사업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시대적 배경에 따라 중점과제, 지도대상, 지도방법, 교육장비 및 자료등이 변화해 왔고 앞으로는 지도사업 중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생활개선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즐거운 농촌생활환경 조성, 농촌여성 일감 갖기사업으로 농외소득 향상, 농작업환경개선 및 노동관리로 건강한 농업인의 작업조건 마련, 우리농산물 애용과 한국형 식생활 문화 정착,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생활개선회 육성 등 다양한 과제를 지도하고 있다.

생활개선사업의 목적은 농가 생활의 질 향상에 있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방향 역시 삶의 질을 높이는 풍요로운 인생가꾸기에 목적을 두고, 농촌주민 특히 농촌여성의 의식을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더 즐겁게, 보다 더 협동하며, 보다 더 많이 배우면서 살고 성실하게 일하여 더 많은 소득을 올리자는 내용을 심어주어 도농간의 균형과 의식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사회여건에 알맞는 지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과학관을 확대하여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담전화 및 상담실 운영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반려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생활개선회 등을 보다 조직적으로 육성하여 농촌여성의 농업 전문인력화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아주 알맞는 몇 가지 과제를 선택하고 발굴하는 생활개선사업이 강화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시군 형편에 따라 좀 더 자율화 될 것으로 기대되

며, 마을과 지역농가에 대한 특색있는 접근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의 활성화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하나는 지역이나 농가의 문제를 시·군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업에 대한 정보나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에 대한 조언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또한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사업에 필요한 지방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등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과 도 및 시·군 지도기관 사이에 원활한 사업추진 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실히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지도직 공무원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원과 시·군 생활지도사가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될 경우 상급보직이 없어서 승진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승진의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명목적으로도 승진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 농촌을 사랑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생활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군청 직원과의 관계에서 지금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닐까, 지역별로 고립된 채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사실 조금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리고 농가의 어려움과 농가주부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데는 생활지도사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지도사는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그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 가고자 한다. 다만 생활지도사 승진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 시·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명확히 그 장단점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직렬통합

이란 방안도 거론된다고 들었을 때는 부족한 소견으로 생각하기에, 명목적인 승진기회는 물론 생기겠지만, 승진대상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실제로 여성인 생활지도사를 추천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시·군에는 일반적으로 생활지도사보다 농촌지도사(남자)가 상대적으로 연장자이기 때문에 보직도 우선 배분하기 쉬우므로 생활개선계장직까지도 우려되며 고유의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생활개선사업 특유의 전문성을 살려나가기도 어렵지 않겠나 염려된다. 사실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생활지도사들의 승진기회가 마련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에게 진실로 도움이 되는 생활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 능력있는 생활지도사가 되려면 끊임없는 자료지원과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 맺는말

우리 생활지도사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또 생활개선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든 지방자율적으로 추진되든 나를 비롯한 모든 생활지도사는 열심히 자신이 처한 현장에서 농민, 특히 농촌여성과 더불어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사업추진과 지도사의 능력 향상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단위를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 형성하는 역할도 기대해 본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말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온 정성을 쏟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되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